

■ 책머리에

『공간과 사회2』를 펴내며

① 그 동안의 상당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공간환경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꺾박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만을 우선한 지역개발은 공간적 불균등발전과정을 심화시키고, 농촌의 급속한 와해와 도시의 과잉팽창을 야기시켰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도시로 몰려든 이농민들은 도시의 저임금 산업노동자 또는 소득원이 불확실한 도시빈민들로 전락했다. 치솟는 물가와 폭등하는 땅값, 집값은 무토지·무주택 서민들의 생계를 점점 더 피곤하게 하고, 노동의 동기는 물론 삶의 의욕까지도 상실시켰다. 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의료보건문제 등과 더불어 점점 악화되어가는 교통, 환경문제 등은 결국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피해를 집중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반면 엄청난 토지를 독과점적으로 소유하는 대재벌과 부유계층들은 아무런 노력없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주체할 수 없는 과소비 생활로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게다가 권력욕에 집착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과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의 공간환경을 점점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도록 했다.

이러한 공간환경의 위기에 직면하여,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원인 규명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들의 모색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공간환경의 위기에 대한 원인규명은 단순히 공간적 문제현상들에 대한 서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생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보다 이론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문제의 발생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들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존의 연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부분은 전통적 방법론을 답습함으로써 실제 연구의욕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간환경의 위기로 인해 꺾박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고, 급속하게 변해가는 현실 공간환경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 문제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간과 사회』는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되고 있다.

② 『공간과 사회 2』의 ‘권두논문’에서 최상철 교수는 우리나라 공간지역연구를 위한 과제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전망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조명래 교수는 오늘날 공간환경이 처한 위기와 대안적 방법론의 모색으로서 정치경제학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이번호의 ‘특집’은 우리의 공간환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로 ‘자본주의 사회와 토지·지대문제’로 설정되었다. 최근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주택의 대량공급과 더불어 경제적 침체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둔화시킴으로써, 마치 토지,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현상황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발생한 위기의 조정기 또는 소강상태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사회공간적 문제들은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상태로 잠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이정전 교수는 토지가 갖는, 일반 상품과 다른 특성들과 관련시켜 토지문제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고전경제학 이후 토지문제의 인식방법에 있어서의 변천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황한식 교수는 마르크스의 농업지대론을 유형별로 철저히 해부하고 이를 명료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지대론 일반, 특히 도시지대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최병두 교수는 자본주의적 토지정책을 규정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성격과 정책 일반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한 토지정책을 경제체계에서 시발하는 위기들의 전이과정을 통제하는 한편 자본축적과정과 관련하여 사회·역사적으로 부여받은 토지의 특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서종균씨는 토지문제에 관한 이러한 이론적 검토들을 배경으로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토지가 담당하는 역할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공간적 문제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토지, 지대론에 관한 특집과 더불어 '현장보고'와 '특별기고' 형식으로 게재된 두 편의 논문이 크게 돋보인다. 고창훈, 한석지 교수는 1991년말 치열하게 전개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운동의 범도민회에 공동대표로 참여하여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문제점과 이를 반대하는 현장운동의 전개과정 및 그 함의를 분석, 정리하여 「제주개발법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논문을 기고해주었다. 이 법은 제주도민의 거센 저항운동과 이의 전국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익과 정치자금을 노리고 결탁한 외지 자본가들과 정치권력에 의해 결국 통과되었지만, 이 법에 근거한 실

제 개발과정에서 다시 격렬한 반대운동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의 현장운동을 생생하면서도 이론적으로 분석한 이 논문은 지역운동 일반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커다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개발과정에서 발생할 반대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350매 정도의 대작 논문을 기고해주신 고창택 교수는 1980년대말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생명운동을 철학적으로 해명, 비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식의 위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생명운동의 사상운동적 실체 및 이 운동의 사상적, 이론적 구조를 철학적으로 해명하고, 생명운동이 근거한 '생명적 세계관'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비판한다. 이 논문의 주장과 함의는 생명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에 근거하여 환경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생명운동을 우리의 사회의식이 지향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지식인들에게 주요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공간환경에서 1991년 후반 이후 주요 '쟁점'이 되었던 몇가지 주제들을 정리한 글로서, 양윤재 교수는 수도권 신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황희연 교수와 김찬호씨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함의된 개발가치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한상진씨는 1991년 6월의 광역의회 선거결과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를 둘러싼 주민운동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서평’에서 장세훈씨는 ‘공간과 사회 신서 시리즈’의 한 권으로 번역 출판된 『도시와 사회이론』을 도시사회학에서 ‘소비사회학’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저자 손더스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호의 특집과 관련하여 ‘자료’ 부분에서, 한국공간환경연구회 도시분과원들은 자본주의 토지, 주택문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의 기초문헌들을 정리했다.

③ 이번호에 원고를 기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획편집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공간과 사회』의 장점이자 지향하고자 하는 종합학문적 연구에 걸맞게, 이번호의 원고 기고자들의 전공분야도 철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지리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도시공학 등에 폭넓게 걸쳐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연 2회의 반년간지로 『공간과 사회』를 편집, 출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다 알차게 꾸미기 위해 이번호의 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쟁점’ 부문의 주제들이 출판의 지연으로 인해 원고를 써주신 분들의 본의와는 무관하게 시의성을 약간 벗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점에 관해 원고를 써주신 분들과 이 책의 독자들에게 매우 죄송한 심정이며, 앞으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기획편집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공간과 사회 1』의 출판 이후 많은 독자들이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고 조언들을 해주셨다. 공간을 전통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학문분과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방법론과 개념들에 대해 호기심어린 이해를 해주었으며, 기존의 사회이론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

었다. 또한 일반 독자들(특히 학부 및 석사과정 학생들)이나 언론에서도 현실문제를 다룬 쟁점이나 시평뿐만 아니라 지역불균등발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편집자들의 미숙함과 아직 관련학문분과들에서 이러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으로 인해, 내용이 다소 낮설고 불충분했으며 잠재적 독자들의 의식을 일깨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공간과 사회 2』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 독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질책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편집위원 대표 최 병 두